

## [펌] <올레나 세메냐카, 아조프 연대의 뮤즈?>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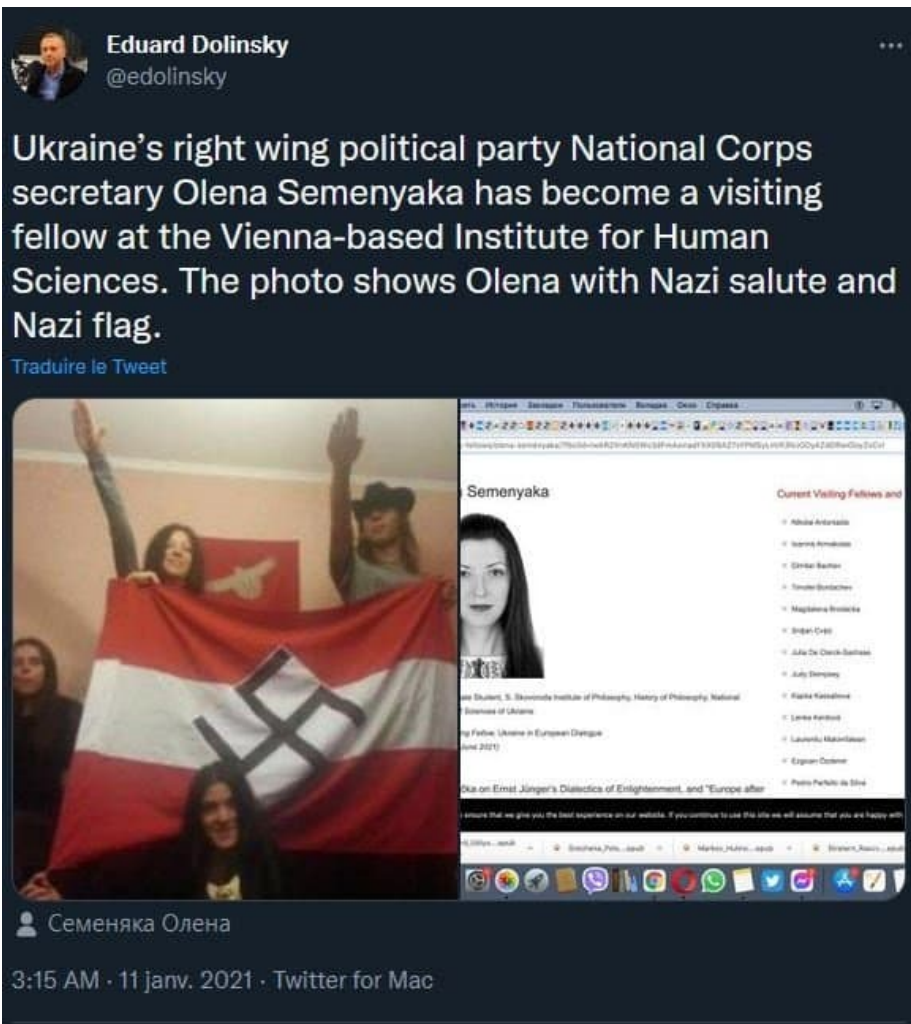
주위 우크라인에 강한 지지를 보내는 연구자나 논평자를 보면 아조프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무시한다. 러시아의 프로파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조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아주 확연히 갈린다. 여러 경향의 논자들이 있지만 그 중 과거 혹은 현재, 잠시 혹은 길게 '트로츠키주의자'였거나 아니면 이에 관련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강한 반러친우경향을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을 좌파니 맑스주의자니 어찌고 현란한 수사법을 구사하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리보면 과거 40년전에 하던 사투(사상투쟁)같은 것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 나이브한 도덕적 PC주의에 입각한 우크라인물과는 이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그 어느 쪽이든 인권 어찌구 하면서 푸틴이 싫다고 우크라 네오나치와 손잡고 미제국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는 말하지 말자.



또 다른 편향으로 부정확한 사실관계 혹은 과장한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로 억지로 스토리를 구성해 우크라를 비난하는 일이다. 나로서는 매일 약30여개의 트위터 계정, 러시아국영언론(영자) 거의 전부, 주요한 서방언론, 3개정도의 군사채널을 체크한다. 적어도 정보에 관한 한 놓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어떤 열렬한 반우크라 유튜버가 그 경우에 해당되겠는 데, 여기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정보나 뉴스는 트위터 등등에 이미 돌고 있는 것들이다. 우연히 보게된 이 유튜버는 올레나를 일러 아조프연대의 총책이나 수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그녀는 아조프연대의 정치조직인 <민족군단>의 정치국원이자 국제담당비서다. 맞다. 이 당내에서 꽤 실력자로 행세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아조프의 모든 결정을 독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1987년생 올레나는 키예프대학 철학부에서 석사논문으로 독일보수혁명을 썼다. 그리고 박사논문으로 에른스트 뵐거 - 뵐거의 책은 이미 국내에서 수권 번역되어 있다 - 를 중심으로 하이데거와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오스트리아 유학 장학금까지 확보했지만, 네오나치 전력이 들끓나 막판에 취소되었다. 한때 두긴의 세미나에도 참석했고 논문도 발표했지만, 두긴의 유라시아주의와는 이후 완전 결별한다. 두긴의 딸 두기나를 암살한 자가 아조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악연중 악연이다.



올레나는 처음 2014년 마이단쿠폰데타페 맹활약을 한 파시스트조직 <우익섹터>에서 언론담당비서를 하다가 곧 결별하고 아조프와 결합한다. 전자가 좀 낡은, 반데라류 우크라 전통적 민족주의와 극우주의를 표방한 반면, 아조프운동의 극우민족주의는 '신'민족주의다.

자신이 내세운 '보수혁명'을 정초하는 과정에서 올레나가 '얼굴'로 내세운 것이 뽕거이고, '대부'로 영입한 것이 니체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온갖 극우 파시스트 사상가와 프랑스의 신우익 사상가를 끌어 들여 우크라에 번역소개하는 작업을 해 왔다. 그 중 한 명이 칼 슈미트다. 마침 내가 칼 슈미트에 대한 저작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지라 나로선 아주 익숙한 주제이자 인물들이다.

뽕거를 사상적 중심으로 삼는 이상 전쟁신격화와 우상화는 당연한 귀결이다. 아조프는 이 번 전쟁 훨씬 이전부터 러와의 전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상사적으로 1920년대 '보수혁명론'의 반보 앞이나 옆이 바로 나치즘이다. 그 상세 궤적을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발터 벤야민이 뽕거류를 놓고 일컬어 전쟁에 대한 '소년적 열광'이라고 한 적이 있다. 마찬가지로 올레나는 전쟁에 대한 '소년적 열광'을 이미 머릿속에 내장하고 있다고 해도 된다.

올레나의 민족주의가 '새로운' 것은 낡은 우크라 국가중심적 민족주의에서 더 나아가 이를 범유럽적Pan-Europa적 컨텍스트속에 위치지웠기 때문이다. 즉 우크라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볼 때 우크라는 동서양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올레나는 20세기 초 한 때 폴란드에서 등장했던 '인터마리움Intermarium' 즉 북해와 흑해사이의 지정학적 공간을 우크라 중심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큰그림을 제시했다. 이러한 우크라 주도하 범유럽적 민족운동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유럽을 건설하는 운동이 '리콘퀘스타Reconquista'다. 그녀가 마이크 잡고 있는 사진의 뒷에 써여 있는 말이다. 원래 리콘퀘스타는 기독교인이 무슬림, 유대인을 이베리아에서 몰아 낸 근 천년에 달하는 대전쟁을 말한다. 그래서 아조프의 임무는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운동을 통합한 좀 더 순혈적인 새로운 유럽건설이다. 여기서 우크라 '아리안'을 위한 소명으로 올레나가 블랙메탈에서 차용해 온 것이 '아리안 루시퍼(악마)주의'개념이다.



올레나에게 전쟁은 세계를 바꾸는 수단일 뿐이다. 여기서 러시아는 물론이고 서방의 자유주의도 그 대상일 뿐이다. 단지 전쟁의 현국면에서 아조프가 권력장악을 할 때까지 서방은 일종의 필요악일 따름이다.

글로벌 극우운동에서 우크라의 위치는 가장 성공한 극우로 자리매김된다. 올레나 역시 긴시간동안 극우운동내의 친러 담론을 무력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올레나의 '보수혁명' 혹은 신세대 파시즘은 푸틴이 내건 '나치청산'과 양립할 수 없다. 같은 하늘아래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hqkDRizFtdkHgWUFLnwcoFuE5QYhktoyuzW5SaHzG2ksvwAoWvb4GEeksLNnSel&id=100080442895409](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2hqkDRizFtdkHgWUFLnwcoFuE5QYhktoyuzW5SaHzG2ksvwAoWvb4GEeksLNnSel&id=100080442895409)